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민선 8기 시책·신규·국가예산 사업 발굴 눈길... 황인홍 군수 주재 보고회 개최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무주군이 2023년도 시책·신규 사업(130개 사업 810억) 및 2024~2025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24개 사업 110억)을 발굴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19일과 20일 양일간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과 공모·국비 확보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보고회를 갖는다.

19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책·신규 및 국가예산 사업 발굴 보고회에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부서별 실·과·소장, 팀장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공유·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은 민선 8기 국정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에 적합한 사업을 우선 발굴했으며 정책 수요도와 군민 복지, 사업의 효과성, 지역 발전성 등을 기준으로 문화·관광, SOC사업, 의료·산업·농림 분야 등에서 총 154개 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주요사업은 △스마트팜 활용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상권 활성화 사업, △정년일자리 사업장 근무환경



19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책·신규 및 국가예산 사업 발굴 보고회에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부서별 실·과·소장, 팀장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공유·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선, △무주IC 디자인 개선, △태권도 문화콘텐츠 발굴 및 육성, △폐공장을 활용한 무주 역사문화관광지 조성, 그리고 △농촌마을 초고속 통신망 확대 구축과 △무주를 담은 시(詩)의 거리 조성, △노후하수관로 개량 등이다.

특히 △귀농·귀촌인 유치, 청년 유입과 △고향사랑기부, △정주여건 개선 관련사업 발굴에 집중해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의 희망찬 미래를 견인할 성장 동력을 발굴한

다는 생각으로 이번 보고회에 임하고 있다”며 “결국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하나하나가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되는 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발굴보고회를 통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적정성, 부서 종합의견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할 후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국제문화재산업전 참가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 무주향교 등 소재로 체험 진행

무주군은 관내 청년업체인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대표 박용수)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2년 국제문화재산업전의 홍보부스(문화유산 유유자적)에 참가해 무주를 알리고 왔다고 밝혔다.

‘모두의 문화재, 세계 속의 K-Heritage!’를 주제로 열린 국제문화재산업전(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 주최/국립문화연구원,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주관)은 국내에서는 유일한 문화재, 박물관 전시회로 문화재 분야에

중요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상호 교류하는 장으로 정평이 나왔다.

올해는 98개 사가 참가했으며 문화재활용사업 성과물 등의 298개 전시와 문화재 잡예, 세미나, 시상식 및 포럼 등이 진행됐다.

무주군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는 국제문화재산업전 향교·서원 유형에 참가해 3일 동안 무주향교와 한공루(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등을 소재로 한 체험키트와 교보재를 전시했으며 15일에는 ‘무주향교의 나날’이라는 주제로 ‘자개 그림북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총 5백여 명이 무주군 홍보부스를 찾았으며 1백여 명이 자개 그림북 만들기와 적상산 3D퍼즐에 참여했다.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김정미 과장은 “국내 최대 문화재·박물관 전시회에 참가해 무주군의 이름을 알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우리 군은 앞으로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문화재 보수·정비, 전통문화 보존·육성,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사과’ 홍콩인 입맛 사로잡다

신활력플러스사업단, 홍콩 현지 매장·SNS·영상광고 홍보

장수군신활력플러스사업단(단장 서병선)이 장수 홍로사과 수확철을 맞아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장수사과 알리기 홍보 행사를 적극 추진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사는 홍콩 현지 매장 홍보와 더불어 SNS, 영상광고 등을 통해 진행됐다. 홍로 사과가 이른 추석 및 높은 지대 영향으로 착색되지 않을 경우 추석 전 출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수출을 통해 추석 이후에 사과를 유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은 지난 2017년 무역회사인 한인홍과 업무협약을 통해 장수사과의 홍콩 수출길을 열었으며, 지난해까지 매년 40~50톤의 사과를 수출하고 올해에는 현재까지 총 17톤의 사과를 수출했다.

군에 따르면 장수사과는 장수신농업농조합법인을 통해 수출되고 있으며,

홍콩 34개의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선명한 붉은 색과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국내에서도 각광 받는 장수 홍로 사과는 홍콩 현지인들의 입맛 또한 사로잡아 절찬리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역 농축산물의 대량소비처 확보를 위해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연계해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홍콩의 사과와 더불어 몽골에 김치를 수출하는 등 장수 농축산물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홍성 군수는 “지역 농축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생산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 평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공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를 통해 농업으로 부자 되는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발전 위한 ‘열린소통회의’ 열려

진안홍삼 축제 성공 개최 위해 합심 다짐

진안군은 19일 오전 군청 강당에서 전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모인 가운데 군정 발전을 위한 ‘열린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각 실과소와 읍면 일선에서 펼쳐지는 현안 및 정책사항들을 논의하고 진안군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10월 개최되는 2022 진안홍삼축제의 진행 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도 마련되었는데, 전반적인 축제 준비 상황 및 축제 개최 시 진행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축제 개최까지 남은 기간 추진할

계획들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춘성 군수는 “열린소통회의를 통해 우리군 발전을 위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 얼마 남지 않은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우리군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군민들께서도 애정 어린 관심으로 홍삼축제 성공을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22진안홍삼축제는 10월 7일에는 진안고원시장, 10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진행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1회 진안군 청년의 날 행사’ 성황리 개최

진안군은 지난 17일 진안을 만남의 광장에서 ‘제1회 진안군 청년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의 날 행사는 ‘PLAY 청년, FLY 진안’ (소통하며 즐긴다는 PLAY와 청년이 꿈을 활짝 펴고 날(FLY) 수 있게 북돋아주는 진안군)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역의 청년들이 행사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해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한 김민규 군의장, 전용태 도의원, 청년단체 등 군민 약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청년선언문 낭독,

청년 정책 유공표창, 진무장 청년연대 실천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성악부터 가요, 댄스, 심어송라이터까지 다양한 장르의 청년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열기가 더욱 고조됐다.

2부에서는 20대 30대, 40대를 대표하는 지역청년들의 토크콘서트도 진행됐으며, 부대행사로 일지리 홍보부스, 퍼스널 컬러체험, 면접용 사진찍기 체험, 청년창업가의 농산물, 공예품 판매부스를 비롯한 진안 청년 체험부스(디퓨저, 키링, 레진아트 등), 청년단체 홍보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함께 진행되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실시

장수군이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9월 29일까지 실시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수요조사를 접수 받는다.

농가 직접 고용과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농협고용)의 두 가지 방식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27개 농가, 42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결혼이민자 가족)를 농가에 배치·운영해 농가의 부족일손 해소에 보탬이 되고 있다.

더불어 농업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하고, 근로자 무단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고, 고용 농가의 부담완화를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소방서, 산악사고 대비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19일 등산객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지난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산악사고 및 산발 예방을 위한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19 등산목 안전지킴이는 산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산로 구간 입구에서 실족, 호흡곤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로 등산객의 안전 산행을 지원하는 긴급구조 대책이다.

진안군 대표적 관광지인 북부 마이산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과 관광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배치한다.

주요 활동 내용은 산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산로 구간에서 등산객들을 위해 △혈압, 당노 측정 등 기초 건강 체크, △실족이나 탈진, 호흡곤란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 △안전한 산행을 위해 각종 산악사고 예방·홍보, △사고가 잦은 등산로 유동 순찰 등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